**무제** [[1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1)  
윤 동 주

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
  
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,  
  
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
  
나는 괴로워했다.  
  
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
  
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
  
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
  
걸어가야겠다.  
  
  
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.

[윤동주](https://namu.wiki/w/%EC%9C%A4%EB%8F%99%EC%A3%BC)의 유고 시집인 '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'의 서시(1941년 11월 20일 작)는 그를 대표하는 시 중의 하나이다. 내용이 짧고 쉬우면서도 사람의 고뇌를 잘 드러낸 시로, 많은 사람들이 시 한 편을 읊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선택할 시 중 하나. 실제로 어느 통계의 결과에 의하면, 일반인들에게 가장 좋은 시를 뽑으라고 하면 대중적인 나태주의 <풀꽃>과 김소월의 시 <진달래꽃>등을 뽑은 것에 비해 시인들은 가장 좋은 시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백이면 백 이 <서시>를 말했다고 한다. 서시의 저력을 볼 수 있는 단면.  
  
아름다운 자연을 단순한 언어로 인간의 고뇌에 비추어낸 윤동주의 대표작.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시를 가사로 해서 응원곡에 쓴다.[[2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2)  
  
마지막에 '스치운다'는 [시적 허용](https://namu.wiki/w/%EC%8B%9C%EC%A0%81%20%ED%97%88%EC%9A%A9) 표현으로, 어법에는 '스친다'가 [맞는다](https://namu.wiki/w/%EB%A7%9E%EB%8A%94%EB%8B%A4).  
  
[놀러와](https://namu.wiki/w/%EB%86%80%EB%9F%AC%EC%99%80) 쎄시봉 특집에서, [조영남](https://namu.wiki/w/%EC%A1%B0%EC%98%81%EB%82%A8)이 이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다. 가사의 분위기에 맞게 잔잔한 곡을 붙여 불렀는데, 그보다 먼저 서시를 노래로 만들고자 했으나 반대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[[3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3) 차마 곡을 쓰지 못했다던 [윤형주](https://namu.wiki/w/%EC%9C%A4%ED%98%95%EC%A3%BC)(윤동주의 육촌 동생)의 말을 듣고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.  
  
[1995년 수능, 2001년 수능](https://namu.wiki/w/%EC%88%98%EB%8A%A5%EC%97%90%20%EC%B6%9C%EC%A0%9C%EB%90%9C%20%EB%AC%B8%ED%95%99%EC%9E%91%ED%92%88%20%EB%AA%A9%EB%A1%9D)에 두 번 출제되었다. 글쓴이는 현실에서 오는 번뇌와 시련 속에서,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이며 신념을 다지고 있다.   
  
'별, 바람' 등의 자연물을 통해 지은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. 별은 천상세계에 속하고 바람은 지상세계에 있는데, 시 마지막에 가서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은 두 세계사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. 또 '바람'은 시인의 불안과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.[[4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4) '한 점 부끄럼 없기를 ~ 괴로워했다'이라는 구절을 통해, 시인의 결벽성을 짐작할 수 있다.[[5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5) '나에게 주어진 길'은 내가 걸어갈 길로, 인생, 운명, 미래의 소명을 가리킨다. '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'라는 구절을 통해, 시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.[[6]](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C%8B%9C(%EC%9C%A4%EB%8F%99%EC%A3%BC)#fn-6)  
  
이 시가 [일제강점기](https://namu.wiki/w/%EC%9D%BC%EC%A0%9C%EA%B0%95%EC%A0%90%EA%B8%B0) 시절에 한글로 적은 시임에도 현재 일본의 중,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시이며[#](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415421), [일본 애니메이션](https://namu.wiki/w/%EC%9D%BC%EB%B3%B8%20%EC%95%A0%EB%8B%88%EB%A9%94%EC%9D%B4%EC%85%98)인 [하이큐](https://namu.wiki/w/%ED%95%98%EC%9D%B4%ED%81%90)에서도 이 시가 등장했다.  
  
떳떳한 삶을 살겠다는 윤동주의 다짐이 그 어떤 작품보다 잘 드러나는 명시로, 죽음이라는 시어가 직접 언급된 때문인지 윤동주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는 결말부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. 대표할 만한 것으로 영화 [동주](https://namu.wiki/w/%EB%8F%99%EC%A3%BC(%EC%98%81%ED%99%94)).  
  
[기아자동차 광고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eyjkC6woLo)에도 사용되었으며 자동차 광고에 문학 감성을 녹여냈다는 호평과 서시를 상업 용도로 써먹었다는 혹평이 공존한다.  
  
[2016년](https://namu.wiki/w/2016%EB%85%84) [무한도전](https://namu.wiki/w/%EB%AC%B4%ED%95%9C%EB%8F%84%EC%A0%84)에서 방영한 '[무한도전 위대한 유산](https://namu.wiki/w/%EB%AC%B4%ED%95%9C%EB%8F%84%EC%A0%84%20%EC%9C%84%EB%8C%80%ED%95%9C%20%EC%9C%A0%EC%82%B0)' 특집에서 [개코](https://namu.wiki/w/%EA%B0%9C%EC%BD%94(%EB%8B%A4%EC%9D%B4%EB%82%98%EB%AF%B9%20%EB%93%80%EC%98%A4))X[황광희](https://namu.wiki/w/%ED%99%A9%EA%B4%91%ED%9D%AC) 그룹이 [노래](https://namu.wiki/w/%EB%85%B8%EB%9E%98)를 만들 때 본 시를 인용했다.